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6. 4. 29.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전심으로 (With All I Am)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코러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29장 21~30절

다 같이

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2. 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26.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발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말씀 나눔 ----- 라반의 집에서 만난 하나님의 섭리 ----- 인 도 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 생명의 위협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얻기 위해 7년을 며칠 같이 여기며 성실히 봉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 보상의 날에 일어난 예상치 못한 반전과 시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야곱을 진정한 언약의 후계자로 빛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속이는 자를 다듬으시는 하나님

본문 22~23절

“22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은 7년의 기다림 끝에 약속된 신부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어두운 밤을 이용해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내는 간교한 사술을 부렸습니다. 이는 과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 형 에서로 변장했던 사건에 대한 ‘신적 응보’적 성격을 띕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더 노련한 속이는 자(라반)에게 철저히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부당함에 분노하지만, 그 이면에 나의 과거 모습이나 영적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거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낮아지는 자로 거듭나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질서 없는 자를 다듬으시는 하나님

본문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야곱의 항의에 라반은 ‘지방의 관습’을 핑계로 자신의 부정직함을 합리화합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끝까지 침묵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습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인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보다 세상의 풍습과 질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형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자신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세상의 도리나 관습보다 하나님의 정직과 약속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여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7절

본문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결국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또 다시 7년, 총 14년의 세월을 봉사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거친 성정을 꺾고 인내를 배우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비록 과정은 고통스러웠으나, 이 기간을 통해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간장이 되는 자녀들을 얻는 기초를 쌓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그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시 7년'을 감내한 야곱처럼, 우리에게 주어지 신자기를 묵묵히 질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이제 속임을 당하는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이스라엘'로 변모해 갑니다. 그러므로 야곱 같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자 되도록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다 같이**

1.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2. 나는 세상의 관습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3.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다시 7년'의 시간은 무엇인가요?

중 보 기 도 큰빛은혜교회를 위해 다 같 이

1.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2.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전도왕들을 보내주시도록
3.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 주고 섬길 수 있도록
4.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미래의 영적 리더로 성장하도록
5.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